

간병 부담에 가정이 무너진다

코로나 장기화에 간병인 수요 폭증...월 400~450만원 큰 부담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사회복지 차원서 대책 마련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증·고령환자를 둔 가족들의 ‘간병’에 대한 고민이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이 개인의 부담과 걱정 수준을 넘어 한 가족을 해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간병인 종사자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조선족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간병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고, 하루 간병비가 1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환자 보호자와 그가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가정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환자를 직접 간병하는 가족 간병 가정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마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암과 치매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일정부분 개입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이제 고령화의 가속화와 감염병 출몰 등으로 인해 간병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맞벌이가 늘면서 국민 대다수가 가정이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가족을 위한 간병인이 필수인데, 실제로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가족이 해체되는 불행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인은 정확한 종사자 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이다.

으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노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A씨의 한달 급여인 300만원 가량을 약 2배 초과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가운데 간병비는 45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150만원의 3배에 달한다.

A씨는 “ 그동안 모아왔던 적금 통장을 꺼 어머니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불하고 있다. 간병업체를 통해 직접 고용한 60대 아주머니를 간병인으로 고용 중인데, 24시간 간병인 탓에 급식비를 포함해 하루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를 일반 요양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종합병원에 모셔야만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대감에 선불리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동간병이 가능한 요양병원에 보내더라도 1대 1로 24시간 곁에 있는 간병인에 비해 서비스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당장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갈등이 커진데다, 일이 많다는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간병인 비위 맞추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 상태가 나빠져 일이 힘들어지자 간병인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던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간병을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얼마전 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음식과 물, 처방약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실상 아버지의 간병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안산단원 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급 간병비와 가족간병비의 기회비용을 포함한 국내 사적 간병비 규모는 8조원으로 추정된다. 고영인 의원이 확보한 ‘2018년 간병살인에 대한 조사, 시사기획’에 따르면 간병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둔 보호자는 14%, 근로시간을 줄인 보호자는 3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다. 특히 환자는 간병비(본인부담금) 2만 2340원 만 부담하면 돼 많게는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개인 간병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말기환자나 중증환자 등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10월 말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원은 광주 23개 병원 1709개 병상, 전남 19개 병원 1383개 병상에 불과하다. 병원 입장에서서는 최대 2억 5000만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병상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간호인력(간호사·조무사) 부족 문제로 병상을 늘리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사적 간병인과 같은 수준의 밀접한 간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두 만족할 만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대한 예산 지원, 인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12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첫 휴일인 14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류세 인하 ... 광주·전남 휘발유 값 3% 떨어져

지난 12일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1당 1800원대로 치솟았던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이 3% 가량 떨어졌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휘발유 제품이 일반 자영 주유소로 유통되면서 전주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보통휘발유 주유소 평균 가격은 1당 광주 1734.0원·전남 1739.51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6.1원·6.66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 직전 날(광주 1801.9원·전남 1798.48원)보다는 각각 67.9원(-3.8%), 58.97원(-3.3%) 떨어졌 금액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1810.16원에서 1742.50원으로 67.66원(-3.7%) 하락했다.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광주 휘발유 가격은 7주 연속 고공행진하다가 이달 10일 1800원을 넘겼다.

애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1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12일 즉시 인하한 곳은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1233개 알뜰주유소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38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유치위 오늘 대구서 출범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대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출범식은 ‘광주와 대구의 한마음을 싣고 나아갈 위대한 비상’의 시작을 주제로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 체육계, 각계 지역사회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전과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공동유치를 위해 연대·협력한다는 뜻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섭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최상준 남화토건 회장·박영기

대구시체육회 회장이 맡았다. 위원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기초자치단체, 체육계, 교육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10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다. 출범식은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대북 공연으로 막을 열고 광주·대구 시민의 힘찬 기운을 대북의 역동적인 울림과 웅장하고 힘 있는 북소리로 표현한다. 행사 하이라이트인 유니언 퍼포먼스(Union performance)는 두 도시 시민의 마음을 합쳐진 하트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은 공동유치 성공을 다짐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출범식에 앞서 “2038 하계아시안게임 유치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 스포츠 인프라 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며 “최초도시가 발표되는 2024년까지 광주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동맹으로 이어온 광주와 대구가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나섬으로써 동서화합을 이루는 국가적 전기를 마련했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회를 유치해 국제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과 브랜드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신창동 유적 체험학습관

2022년 5월에 만나요!







마한시대의 대표 생활유적지인 신창동 유적에서
고대 마한인의 삶과 문화를 오늘과 연결한다.
국내 최초 “마한문화 체험학습관” 문열다.

광주대한민국
두, 미래로!